

# 한국민의 신뢰 전하러 왔다

## 「로스앤젤레스」 도착 인사

1981년 1월 28일

「톰 브래들리」 「로스앤젤레스」 시장 내외분, 신사 숙녀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재미동포 여러분!

본인은 오늘 위대하고 영광스런 미국을 이끌어 나갈 새 영도자를 맞아 새 출발을 하고 있는 귀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인은 취임 후 외국 원수로는 처음으로 본인을 초청해 주신 「로널드 레이건」 미합중국 대통령각하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인 일행에게 따뜻한 환영을 베풀어 주신 「로스앤젤레스」 시장과 재미동포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미국과 우리 한국은 지리적으로도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으며,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 나라는 오래 전부터 매우 깊은 우의와 밀접한 유래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특히 공산침략자들에 의한 6·25동란 등 전쟁터에서 한·미양국은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같은 신념 아래 함께 피흘려 싸운 맹방입니다.

우리 한국이 그간의 온갖 어려움을 딛고 성장을 위한 노력을 거듭해 온 이제, 두 나라는 상호 중요한 교역상대국의 하나이며 외교, 군사,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과 교류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미국정부와 국민이 우리에게 보여준 깊은 우정과 아낌없는 성원에 대해 한국 국민은 가슴 깊이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나라 국민이 다 함께 염원하고 있는 바 태평양지역의 평화수호와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미국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번 미국방문을 통하여 수행해야 할 과제의 하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한국 국민의 변함없는 신뢰와 기대를 전하는 일입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 계신 신사 숙녀 여러분의 희망찬 모습과 따뜻한 환대에 접하고, 본인의 이번 여행이 본인에게는 물론 한국국민에게 매우 즐겁고 보람있는 여행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환영에 거듭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